

문화방송 노조특보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하유신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789-3881-6
FAX 02-782-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 @saveourmbc
2017년 7월 14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김민식 PD 인사위 중단, 심의국 발령

김PD 소명 도중 임원들이 정회 요구, 사측 “다음 주에 다시 인사위 개최” 징계 강행



MBC 경영진이 김민식 피디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고, 김 피디를 심의국으로 전격 발령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인사위원회에서 김 피디는 미리 준비한 54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사위원들은 매우 당황하며 소명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인사위원장인 백종문 부사장은 “장난치는 거요?”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발언을 3분 내에 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임원들은 회의실 밖까지 들릴 정도의 고성을 질렀다. 취업규칙 69조는 인사위에 회부된 직원에게 소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인사위 시작 30분만에 인사위원회를 정회시켰다. 임원들은 매우 경직된 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인사위는 5시50분에 속개됐지만, 결국 백종문 부사장은 인사부장과 상의한 뒤 오후 6시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시킨 뒤 퇴장했다. 이날 인사위에는 백종문 부사장, 이은우 경영본부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오정환 보도본부장, 김성근 기술본부장, 이흥우 예능본부장 등 6명만 참석했다.

이날 김 피디는 인사위에서 밝힐 54쪽에 이르는 소명자료를 작성해 이를 읽고 인사위 과정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었다. 김 피디는 인사위 출석에 앞서 응원을 위해 모인 동료 피디 등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3번 외친 뒤 임원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러나 인사부 직원과 안전관리 요원들이 페이스북 라이브 중단을 요구하며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았다. 결국 김 PD는 회사 밖 광장과 회사 안 로비에서 썰매하게 진행한 페이스북 라이브를 멈춰야 했고, 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끄고 출석해야 했다.



1시간 만에 인사위가 정회된 뒤 김민식 피디는 임원실 앞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외침을 이어갔다. 회의실 밖을 지키던 송윤석 비서실장은 그러자 “김장겸을 지지한다”고 혼자 소리치며 김민식 피디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로비로 내려온 김 피디는 조합원들에게 “지난 5년간 여러분을 대신해 임원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대신하고 싶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김 피디는 “임원들이 계속 저의 질문과 소명을 막았다. 밥 먹을 때가 됐으니 그만 하자고 했다. 결국 백종문 부사장이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더니 정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피디에게 내려진 1개월 대기발령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사측은 오후 7시 김 피디를 심의국으로 발령냈다. 사측은 다음주에 다시 인사위를 열겠다고 밝혀, 징계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사위가 열리는 동안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는 전 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10명의 시민들이 김 피디를 응원하고 김장겸 퇴진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피디의 페이스북 라이브는 단 10분만에 1백 개가 넘는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김 피디의 징계 상황을 계속 특보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합원들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